

광주문화예회관 수장 전문가 영입해야

● 고품격 문화수도를 디자인하자

(9) 행정에선 문화적 창의성 안 나온다

부산문화예회관이 개관 25년만에 새로운 실험중이다. 1988년 개관 이후 행정관료가 맡았던 관광직을 처음으로 개방형으로 전환,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계약 공무원은 임용기간 2년(5년 범위 연장 가능)이며 연봉 하한액은 5067만원. 여기에 '우수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상한액(7543만원) 제한 없이 연봉 계약 가능'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우수 인력은 과격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데려오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공무원 관장 '한계'…문화재단 자율성 확보 절실

문화전당사업 지역 단체·예술가들 참여 필요

공모를 마감한 결과 부산과 서울 등지에서 공연예술 전문가 등 모두 10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또 올해 시장 직속으로 문화 특보를 임명키로 하는 등 문화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대전, 대구 등 대부분 자치단체의 대형 공연장은 전문가들이 최고 책임자를 맡고 있는 게 추세다.

하지만 지난 1991년 문을 연 광주문화예회관은 지금까지 4급 공무원이 관장을 맡고 있다. 대신 지난 2011년부터 공연예술장을 개방형으로 채용했지만 아무래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역 문화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광주문화예회관의 위상과

역할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올해 흑독한 비판을 받은 문화재단의 경우 철저한 자기 반성과 함께 합리적인 운영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광주시의 경우 예산 운용과 집행은 엄격히 하되, 문화재단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특히 지난 사태를 빌미로 행여 재단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비롯, 광주 미래를 결정하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에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은 추진단 출범 초기부터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각각 각종 1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지원 포럼의 활동은 눈길을 끈다. 특히 최근 아시아문화개발원에서 마련한 기존 문화 전당 콘텐츠 계획에 지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완한 '아시아문화 전당 콘텐츠 구축방안'을 공개하는 등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또 전당 콘텐츠 개발을 담당하는 아시아문화개발원, 광주문화재단, 광주비엔날레 재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디자인센터,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등 7개 단체가 '광주문화기관 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한 것도 의미 있는 행보다. 협의회는 아시아문화전당 내 5개원과 지역문화기관들의 공조 관계를 통해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는 일을 하나가겠다는 결의처럼 의미있는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끝>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금까지 문예회관을 거쳐간 관장은 현직 관장을 포함해 모두 18명. 이중 가장 오래 재직한 사람은 2년 8개월이었으며 단 7개월만 면문 사람도 있었다. 또 1년 미만 재직자도 7명에 달하는 등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정책을 펴기에는 어려웠다.

특히 대부분 문예회관장으로 장년이 몇년 남지 않은 인사들이 낙점되면서 '조용히 머물다 가는 자리'라는 평이 강했다.

지역문화계에서는 1000석 이상의 지역 유일 공연장을 운영하고

대한민국은 '현재'가 중요해

문화부, 국민 의식 변화 조사…트위터·블로그 키워드 1위

'현재' 키워드 언급량은 지난 2011년 1월 15만여 건에서 지난 3월 24만여 건으로 증가했고, '일상'에 대한 언급도 지난 2011년 5만5000여 건에서 지난 3월 10만5000여 건으로 2배가량 상승했다.

'일상'에 대한 연관어 분석 결과 '지치다'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가장 많이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연관어 순위 6~20위 사이에 '감사하다', '즐겁다', '소중하다', '화려하다', '퇴근 후' 등 노출량이 많아, 문화체육관광부는 '사람들이 일상에 지치지만 감사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친다'에 대한 연관어 분석 결과에서는 과거에는



영화 감상, 여행, 커피 마시기 등을 가족·친구들과 함께했으나 최근에는 점점 혼자 즐기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룸', '오피스텔', '소형주택' 등 1인 가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연극 비빔밥 28~30일 남구문화예회관

극단 청춘이 영세민 아파트촌을 배경으로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연극 '비빔밥'을 무대에 올린다. 28일~30일(28일 오후 8시, 29일 오후 4시·7시, 30일 오후 5시)까지 광주 남구문화예회관.

산동네 임대 아파트 입주자인 갑수 명순 부부는 이곳에서 기반을 잡아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꿈꾸는 신혼부부다. 옆집에 사는 장애소년 영만이는 수시로 괴성을 지르고 이웃한 1502호 부부는 매일 부부싸움을 하는 통에 조용할 날이 없다.

사는 게 힘들어 이웃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갑수 부부에게 아파트에서 쫓겨날 위기가 찾아오는데….

지역에서 활발한 극작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영학(극단 허방 대표)씨가 극본을 썼으며 극단 대표 오설균씨가 연출을 맡았다. 지난 2001년 초연된 후 2008년 '입주자를 찾습니다'로 각색돼 관객들을 만났다.

티켓 가격 2만원. 전화 예매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문의 062-430-52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조향순 한국화 부문 '대상'

전남도 미술대전 2208점 출품 1147점 입상

'제49회 전남도 미술대전'에서 '영훈의 도시'를 출품한 박은수(48·광주시 서구)씨가 서양화 부문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전남도와 전남예총은 27일 한국화, 서양화, 서예, 사진 등 10개 부문에서 7개 부문 7개 작품을 대상으로, 8개 부문 9개 작품을 우수상으로 각각 선정했다. 사진, 조각, 디자인 부문 대상은 없다.

이번 미술대전에는 모두 2208점이 출품됐으며, 모두 1147점(특선 377, 입선 754)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

부문별 대상 수상자와 작품은 ▲한국화 조향순(56·전북 군산) '계류' ▲서예 김양현(51·진도) '파초' ▲서각 박준기(62·부산시 서구) '도인자선' ▲사군자(문인화) 정덕순(50·광주시 남구) '전가 소견' ▲공예 박정규(40·무안) '분청사기 양각문 항아리' ▲건축 김유미(20)·김봉현(23)·신동욱(21) 'TIME FLOW IN THE BOOK' 등이다.



박은수작 '영훈의 도시'

각 부문별 대상에게는 상패와 상금 500만원이 시상된다. 시상식은 7월20일 오후 3시 목포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문의 062-351-7506.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市 "빛고을 문학관 부지 '광주 동구'로"

문화계 "폭넓게 부지 물색해야"

광주시가 부지선정을 놓고 논란을 빚은 빛고을 문학관(이하 문학관) 건립지역을 애초 방침대로 동구로 학정했다. 문학계 일각에서는 '문화관 건립부지를 특정지역으로 봉박을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시는 27일 "빛고을 문학관 건립 예정지역을 광주시 동구로 한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용역 등을 바탕으로 선정된 동구 지역에 건립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동구 지역민, 시민들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이에 따라 동구 지역 국·공유 건물, 사유지 등을 대상으로 대상지를 물색한 뒤 적절한 여론 수

렴절차를 거쳐 건립부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립지역을 바꾸게 되면 동구민들의 반발이 예상될 뿐 아니라 각 자치구가 유치를 놓고 불필요한 갈등을 빚게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동구지역에 문학관을 건립하되, 문학계를 비롯해 지역 각계의 공감을 바탕으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빛고을 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건립추진위)는 역할과 기능이 바뀌어 존치된다. 시는 건립추진위의 인원을 보강해 문학관 부지가 결정되면 문학관을 채울 콘텐츠를 논의하는 역할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 단, 건립추진위는 문학관 부지 선정건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작가회(회장 조진태·이하 작가회의)는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성, 광주 정신의 상징성, 시민과의 교류가 용이한 경관성을 아우를 수 있는 곳으로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며 "다만 시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지역 제한을 두지 말고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가회의는 이어 "시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기준 건립추진위는 당연히 해체하고 새로운 추진체를 구성해, 부지 선정, 콘텐츠 구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립추진위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빛고을 문학관 1순위 건립 후보지로 선정했던 명성 예식장을 포함한 건립부지 건을 '백지상태'로 하고 광주시에 전권을 맡겼다.

/윤영기·박성천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대표 공연장인 문예회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문화예회관 제공>

광주 대표 공연장인 문예회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문화예회관 제공>

삼희 공인중개사

모든 부동산 급매매

급매처분상담

법인소유물건

지분소유물건

미준공건물

경매증인물건

복잡한 권리관계에 있는 부동산 말소와 동시에 일괄 매입

매수자 상담환경

법률/금융상담 동구 블로동(구)그랜드호텔 3층
(062) 234-1199 010-8730-3340

신뢰할 안내자를 만나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신한공인중개사

신축 원룸 매매 전문

★북구 전대 상대·농대 1분, 신축 4층, 룸, 14개(주택있음)
월수익 500만, 매가 5억 9천만 (벽돌시공, 대리석시공)
★북구 전대 정문 1분, 신축 4층, 룸, 16개 (주택 40평)
월수익 750만, 매가 8억 4천만 (벽돌시공, 대리석시공)
★북구 전대 정문 1분, 신축 4층, 룸, 21개 (주택전환)
월수익 750만, 매가 8억 8천만 (엘리베이터, 벽돌시공, 대리석시공)
★서구 쌍촌동 운천역 2분, 신축 4층, 룸, 8개(주택있음)
월수익 280만, 매가 5억 2천(보2천, 용1억 2천)
★서구 쌍촌동 신축 4층, 원·투룸 14개 (주택있음)
월수익 9천만, 매가 6억 9천만 (코너, 최고 위치)
월수익 330만 (보2500만, 용1억 2천) 매기5억5천만

★상가 일대 1층, 수원지구 대방 5(5) 후문 59㎡
(보3천·월130만) 모든업종가능
★상가 일대 3층, 수원지구, 모아엘기APT 150㎡
(보1천·월 90만) 즉시입주, 시비없음
★상가매매 1층, 수원지구 롯데마트·영화관 300세대 대방 5(5)
APT후문 59㎡ 매가 3억 6천. 임대중 (보3천·월 150만)
★상가 매매 1층, 수원지구 신한은행 뒷 300세대 모아엘기APT
후문 3층 280㎡ 매가 3억 2천 (보2천만, 월 200만, 용2억 5천만) 학원, 병원, 사무실직접판매
★상가매매 1층, 수원지구 대방 1층 APT정문 대지 304㎡
매가 6억 3천 (보2천만, 월 360만, 용2억 5천만)
★상가매매 1층, 수원지구 대성베르힐 대지 304㎡
매가 7억 (보1억 3천만, 용 4억)

독서실 급 대매

수원지구 3천세대 모아엘기APT 앞 2층, 총 91석
신축, 최신식 시설, 최고위치
(보5천만, 월 250만, 시비약간있음)

062)527-7600
H.P. 010-6670-98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암동(국민은행·LG전자역)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장흥. 특령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리브리프코스에 해수욕장과 선착장 그리고, 최고의 위치시설이 어울린 절경의 별장지

토지 4,900㎡(1,485평)

건물 245㎡(75평)

캐나다산 수입목 목조건물(100%)

에 수입 창호등 최고급자재 및 내부

공기 자동제어 출입문의 숨쉬는 점.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매매가 : 협의

최고의 도심속 전원주택지

지사동 2차순환도로 인근 도심속의 전원주택지

전 3,700㎡(1,120평)

매가 3억9천만원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